티벳(西藏) 불교와 판첸라마의 還生 *

赤仁在

I. 서론
II. 본교와 불교
III. 밀종과 종카파의 불교개혁
IV. 政教合一과 活佛轉世와 판첸라마
V. 결론

I. 서론

신비의 땅 티벳은 해발 3,400m의 높은 고원에서 독특한 불교문화를 콩피워 그 해발보다 더 높은 정신적 경지를 이루어내었다.

티벳의 불교는 인도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인도불교와도 다르고 중국불교와도 차이가 두려한 티벳 고유의 불교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계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活佛轉世'의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티벳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본교는 후자에 역점을 두고 티벳 불교 사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티벳 불교의 특성을 야자키 쇼젠(矢崎正見)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토양으로서의 티벳 불교가 갖는 특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 특수성은 불교를 모태로 하는 불교 그 자체이면서도 원시불교는 물론 소승불교나 대승불교와 전혀 다른 형태로 독특하게 전개되었는데, 티벳 불교라기 보다 소위 '라마교'로서 알려진 불교를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몽고 등지로 번지기는 했지만 여하튼 티벳 고원이라는 폐쇄사회에서 생겨나고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성장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티벳 내부에서는 물론 둥고들을 포함한 충렬적인
라마교권에 있어서 정치와의 결탁이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에 비해 혼잡 심하다
는 점이다. 넷째로, 활불사상이 존재함으로써, ‘라마교’라고 불리는 가담으로
다른 나라의 불교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야자키 쇼엔은 티벳불교를 ‘라마교’라고 명명하고, 그것이 티벳교원에서 생
성 발전했고 정치와 협일된 강한 정교합일 체제이며, 活佛轉世를 그 주요한 내
용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는 티벳불교가 ‘라마교’라고 불리는 이유를 네 가지
로 들었다. 첫째로 티벳불교의 咒術性인데, 주술은 현실생활 속에서 재앙을 물
리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어떤 영적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의탁하는 데서 이
루어진다. 티베트인은 이러한 영적능력을 가진 자를 라마 즉, 살아있는 부처
(活佛)라고 생각하였다. 일반불교 가운데 주술성이 농후한 것이 密教이다. 티베
트불교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필교가 월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티베
트불교에서 필교의 4색차가 농후한 이유는 당시 인도불교의 영향도 컸겠지만, 티
베트 동종종교인 본(Bon, 本)교와 습합하면서 생긴 토착적인 풍토와 판계가 깊
다는 것이다. 둘째로 티베트인들의 라마에 대한 열광적인 존경이 티베트 왕에
라마교를 탄생시킨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三寶信仰 이외에 라마교에서
는 라마寶를 추가한 四寶信仰이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라마는 상보와 신앙자
간의 중개자로 승배되며, 영원한 진리(法)도 스승인 라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앙자와 결부될 수 없다. 따라서 라마교도들은 상보 이상의 존재로서 라마보
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라마 내지 라마보에 대한 특이한 신앙이 결국
티벳불교의 독특한 活佛사상을 만들어내었다. 活佛사상은 라마보의 당제인 라
마가 비밀 탄트라의 판변에 따라 자기의 영혼을 그 육체에서 쉽게 떠리고 자유
로이 다른 육체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轉生이 活佛사상을 낳은 사상적 배경이라는 것이다. 덕
이 높은 라마가 죽은 뒤, 그 영혼이 幼兒의 육체에 轉生하는 경우 누가 그 육체
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우연의 소지이다. 육체를 제공함으로
써 유아 및 그 친족이 받는 과보는 매우 큰 것이며 또한, 이 轉生成능력은 많은
修行을 쌓은 라마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티벳불교는 종교와 정치가

1) 야마구치 즈이호·야자키 쇼엔 저, 이호근·안영길 옮김, 《티벳 불교사》(서울, 민족사, 1995), pp. 126-127